



◇ 불교성지로 개발중인 룬비니

네팔 룬비니 성지 조성

박물관·병원등 건립...한국등 10개국 19단체

부처님 나신 곳 네팔 룬비니의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룬비니 개발계획은 모두 7백70여 헥타르의 땅에 성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이 계획에 따르면 개발구역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특성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우선 '신 룬비니 마을'이라 명명된 북부 지역은 병원, 호텔,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되며, 156피트의 평화의

탑은 이미 들어선 상태다.

중부지역은 남부지역과 교량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인 성지가 들어서게 되며 남부지역은 아소카 석주와 마야데비 사원 주변을 중심으로 고대 사원의 조형물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과 금주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번 룬비니 개발계획에는 한국을 비롯 버마 인도 태국 네팔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10개국 19개 불교단체들이 참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초파일 '출발...' 자제공덕회 묘희스님 출연후 무의탁 노인돕기 "너도 나도 관심"

김종찬·구지윤씨 등 불자들 위문·가입뜻 밝혀

지난 7일 부처님 오신 날 오후 6시부터 두시간동안 방송된 교통방송의 '출발 서울대행진'이 무의탁 할머니들의 향기로운 연못으로 피고있다. 이날 교통방송은 사찰주변의 교통을 안내하며 자제공덕회 묘희스님을 초청했다.

진행을 맡고있는 김종찬씨와 게스트로 출연했던 구지윤씨는 스님의 자비행에 감동돼 방송

중에 즉석에서 후원회원에 가입했고 방송프로그램까지도 모두 가입을 신청한 것.

달달PD 김부영씨는 "현재까지도 하루에 2~3통씩 전화가 오고 있다"며 "이렇게 호응이 클 줄 몰랐다"고 밝혔다.

모사찰의 거사행회를 창립시켰을 만큼 불교신행을 적극적으로 해온 김종찬씨는 "출중한 스님을 보니 존경스러웠다"며

묘희스님의 자제공덕회에 평생 회원이 됐다.

또 불교방송 '여성시대' 진행을 맡았던 구지윤씨는 "세 수 60인 스님의 활발한 활동과 음성이 맑아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문화교실 회원들과 함께 자제정사를 방문하여 음성공양을 펼칠 계획을 잡고 있다.

독실한 불자들이 대부분인

'구지윤 문화교실' 회장 이숙자 보살도 회원들과 함께 위문 및 가입의 뜻을 모으고 있다.

'남을 돕는 일이 떠들썩하면 본뜻이 흐려진다'며 소리소문 없이 자비보살행을 실천해온 묘희스님은 경기도 화성군에 자제정사(0339)57-5788)를 세워 38명의 무의탁할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에 맺어진 교통방송과의 인연에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 하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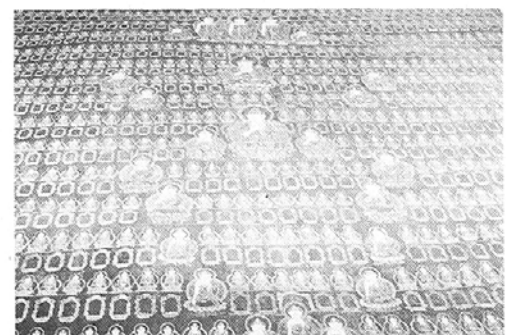
◇ 묘희스님



◇ 김종찬씨



◇ 구지윤씨



용주사 천불탱화

지난 14일 용주사가 공개한 천불탱화.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그려진 천불의 각각 아래에는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려져 있다. 가로 3.7m 세로 6.8m의 이 탱화는 72년에 용주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화계에서는 일제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탱화는 25일 오후 2시 수원실내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화산효행교육원 건립축하공연에서 다시 공개된다.

영산대재 시현

태고종 영산대재본회(회장 김해경스님)는 지난 19일 제7회 영산대재시현회를 봉원사에서 봉행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8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이번 영

산대를 가리지 않는 권승들의 불교적 행태, 여자의 눈에 탐닉하는 모습 등 불교계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반대편에 수행정진에만 전념

신채스승교육을 통리원에서 실시했다.

종단의 스승과 중무원 양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조영자 정각사를 비롯 총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스승교육내용으로는 불교·밀교의 기초, 불공과 교화, 실무종합등 다양하게 실시했다.

교육을 마친 5명은 49일 불공, 7개월동안의 실무생활을 걸쳐 본격적인 포교 수행활동을 하게 된다.

종조탄신 봉축법회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지난 10일 제4회 종조탄신절을 맞아 각계 총인을 비롯 5백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인원 중조전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조탄신 봉축법회에서 지광통리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기구를 마련, 종단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채스승교육 실시

불교총지중 5명 양성

불교총지중(통리원장 안효강)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언론 독립성 지킬터" 강한필職代 간담회서

김태호사장의 사퇴와 관련 사장직무대행을 맡은 강한필전무는 지난 17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교방송 사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필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前 김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대의상의 직원 징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한필 직무대리는 "불교방송과 종단과의 관계개선과 직원화합에 최선을 다하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자·최낙복 교수

삼광학술상 수상

전태종 삼광사(주지 변춘광)는 지난 16일 오후 6시 삼광사내 불교회관에서 제8회 삼광 한글 학술상 및 제2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식을 거행했다. 수상자는 박선자교수(부산대) 최낙복교수(동아대)의 최정진(부산대 학생)등 우수상 3명과 장려상 4명.

직원징계 등 논의

조계종 불교방송 대책위는 지난 16일 총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가불자사장선출' '직원징계'를 골자로 하는 안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장선출과 관련 진흥원 추천조항을 없애고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이사의 임기조항을 명시하는 정관개정과 재가불자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장 선출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징계부분(이태호, 김재진 국장, 이정부장 해임)은 끝까지 관철기로 했으며 방송제작 협조업한 출연금지 차기 시장 선임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히고 직원징계와 차기시장 임명안건까지를 방송국 정상화 시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적 삶과 죽음' 심층탐구

하와이 대,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하와이 대학이 '불교적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하는 하와이 프로젝트를 5월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설한다.

포럼 및 시연형식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의 불교전통을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과 하와이대 교수 위스킨신대 애론슨 박사, 라이스대 클레인교수, 경도대 베커교수와 진월스님이 강연한다.

첫째날인 5월20일에는 생사 문제를 다루는 현대 구호봉사, 자 양성체제와 아시아 문화현태에 대한 개괄적인 토의가 벌어진다. 27일에는 일본의

불교전통이 6월3일에는 베트남 불교전통 10일에는 한국의 불교전통, 17일에는 중국의 불교전통 21일에는 남방불교전통 22일에는 티벳불교전통, 23일에는 일본인의 삶과 죽음이 각각 강연된다.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아시아 불교문화 속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담은 예술, 의식, 신앙, 관습, 가치관, 철학 등을 아시아문화화를 통해 음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지역 교수불자협 태동

加 선련사서 7월4일 창립법회

'북미 교수불자협의회' (FAB)는 오는 7월4일 캐나다 토론토 선련사(회주 삼우스님)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선련사 회주 삼우스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된 북미교수불자협의회는 서양불교 정착이라는 역사적 과

제를 안고 그 정착과정의 시점에서 불자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초대 의장은 스티븐 레이코프교수(미국 오하이오주 콜리도 대학 철학과)와 피터 팀만교수(토론토대학 환경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목탁 소리에

정성운 (취재2부 기자)

하는 구도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

이정씨는 이 소설에서 수행자의 고준한 정신적 유산이 바로 '사리'임을 강조하는 한편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권

승들의 쓸쓸한 말로를 설정해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려 애썼다. 아울러 종관다툼을 일격종족하는 '인가의 부장'을 등장시켜 읽는 재미를 돋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불교의 나아갈 방향은 지향점을 잃고 있다.

불교 이름빌린 상업소설

동적인 불교 문학이 아쉬운 현실에서, 또 진정한 구도자의 불교사상의 표상을 만나고 싶은 불자들에게 이 소설이 더욱 깊은 낭패감을 남겨 줄까 염려된다. 쓰디쓴 뒷맛을 즐기는 독자만이 반길 작품이다.

불교성순

교지례

백두산·연길·북경 5일

- 출발: 6월 25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95만원

스리랑카 6일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118만원

대만 5일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195만원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6월 3일
- 동참금: 188만원

베트남·네팔 10일

- 출발: 5월 27일
- 동참금: 230만원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